



## 자궁암 검사결과 정신이 아찔 .... 조기발견으로 완치후 퇴원

### 어느 가정주부의 투병기

#### ■ 민 병 숙

저는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는 건강을 신조로 삼고 살아온 61세의 여성입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행한 건강소식(8월호)이란 월간 잡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중에서 40대이후 여성에게 성인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글을 읽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던 중

한 동네에 사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직원을 찾아가서 나의 건강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건강관리협회로 가면 저렴한 가격으로 종합검사와 자궁암에 대하여 조기발견 할 수 있는 세포진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직원의 친절한 안내로 한국

## ‘자궁암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자궁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전치료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검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건강관리협회를 찾아가게 되었으며 건강관리협회 검사담당 직원의 친절 한 안내로 비전염성 만성질환인 당뇨병, 간장질환, 심장질환, 빈혈, 고혈압, 간질환, 간염에 대한 검사를 건협 서울지부 검사실에서 검사를 받은 후 여성들에게 많이 걸리는 자궁암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또한 자궁암을 조기발견하면 완전치료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이 검사도 받기로 하였습니다.

건강관리협회에서는 자궁암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간편한 방법으로 자궁암 자기채취기 기구를 저에게 주면서 이 채취기의 사용방법등을 상세히 가르쳐 주어서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검사 기구를 가지고 집에 와서 가르쳐 준대로 자가채취하여 우편으로 보내고 결과를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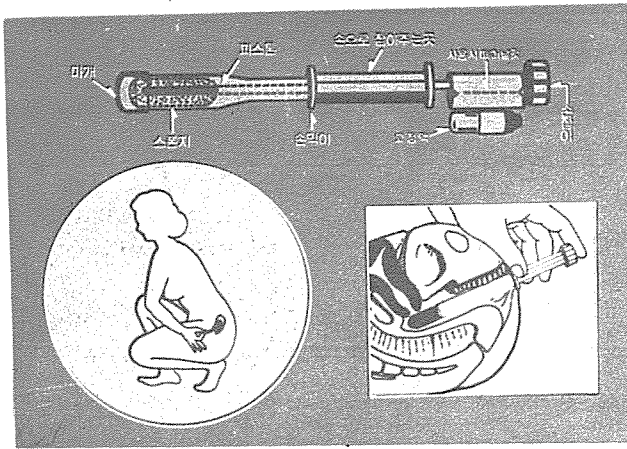
건강에 자신을 갖고 살아온 나는 설마 암은 아니겠지 하면서도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마음은 편치를 았았습니다. 그런데 며칠후 다른 검사는 이상이 없으나 자궁암 검사에 대한 결과는 Class Ⅲ로 나타났습니다. 산부인과병원에 가서 자궁에 냉이 많으니 냉 치료를 받은 후에 재검사를 받으

라는 연락이었습니다.

깜짝 놀라고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암은 깨끗이 치료될 수 없고 또 재발도 잘 된다는 것으로 믿고 있던 나는 겁이 더러웠습니다. 집안 식구들도 모두 걱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잘못 검사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이 있다는 말을 듣고 가만 있을 수만은 없어 생각끝에 다시 건강관리협회 담당의사인 이인성 박사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직접상담을 하였습니다.

박사님 말씀은 ClassⅢ으로 판검한 것은 암세포에 가까운 세포와 이에 따른 의심되는 세포들이 많이 검출되어 우선 의심이 되므로 자궁을 깨끗이 치료후 다시한번 검사를 한후 확실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여 이인성 박사님이 시키는 대로 산부인과를 찾아가 검사결과 통지서를 보이고 치료를 의뢰하였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검사통지서를 보시고 아무 말없이 오늘부터 일주일간 치료하라는 말씀에 일주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건강관리협회 서울지부에서 재검사를 받기로 마음



◀ 자궁암 자기 채취법

먹고 건강관리협회로 찾아가 치료결과를 말씀드리고 다시 재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검사를 받고 그날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민과 불안속에 검사결과가 자궁암이 아니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통지가 온 것은 앞서 검사결과와 같이 세포학적 분류인 papanicolaou Class IV란 진단이 나왔습니다. 저는 건강관리협회를 찾아가서 더 상세히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치료후 검사결과 Class IV로 나온 것은 지난번 검사보다 더 악성인 것으로 나왔으므로 자궁내 어디 한 부분에서 암에 가까운 세포가 자라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의심되니 우선 치료보다 건강관리협회에서 소개한 서울 ○○병원 암센터에 가서 조직 검사 등 상세한 검사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 병원을 찾아가 세밀한 조직검사등 여러 가지

검사결과 자궁암부암종의 「O」기 암상피대암종임을 진단받고 병원에서도 어떻게 초기를 알고 왔느냐고 정말 때를 맞춰 잘 왔다며 좀더 늦었으면 수술하여도 소용없지만 아주머니는 참 재수가 좋다고 수술만 하면 99% 깨끗이 낫는다고 그날로 입원하러기에 입원을 하여 지난 8월 30일 자궁암 초기로 자궁절제 수술을 받고 담당의사로부터 정말 좋은 결과라며 걱정말라는 말에 마음이 놓이고 기뻐합니다.

입원중 옆에 입원한 분들이 어떻게 수술했느냐는 물음에 저는 기쁘고 자신만만한 마음으로 건강관리협회에서 자궁암 자기채취기로 생각지도 않다가 검사하여 초기발견으로 깨끗이 수술했다는 말에 모두 건강관리협회에서 검사 받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들 하여 많이 소개해 주었습니다.

정말 내가 생각해도 자궁암 검사를

‘정말 내가 생각해도 자궁암검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암인줄도 모르고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니 정신이 아찔하고 정말 천만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 않았더라면 암인줄도 모르고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니 정신이 아찔하고 정말 천만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수술하기전 각종 검사를 하게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건강관리협회에서 검사받은 진단서를 제출하니 담당의사가 이 진단서의 출처를 묻기에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지부검사소에서 했다고 하며 나 자신도 혹시 다시 검사하자고 할려나 하고 의심했으나 뜻밖에 아주머니께서 가지고 오신 검사진단서에 검사받은 의의 사항만 검사하고 수술할 것이라는 말에 그때까지도 건강관리협회를 내자신도 꼭 믿지 않았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진단서면 어느 병원에서고 인정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후 10일간 입원하여 지금은 퇴원하여 건강도 다시찾고 누가 물어도 자궁암이라면 건강관리협회에서 하는 자궁암 자기체취기로 1년에 한번씩은 검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권하고 싶습니다. 정말 건강은 누구보다 자기가 지켜야 될 것입니다. 저는 언제까지나 건강을 신조로 삼고 살아갈 것입니다.

꼭 여성이라면 1년에 한번은 한국 건강관리협회를 방문하여 자궁암 검사를 받으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가정주부 : 경기도 광명시 광명4동 광명 APT 37동 204호)

## 생활과학

### ■ 양복손질법

모직으로 된 옷에 얼룩이나 때가 묻으면 폼팡이나 종이 먹기 쉬어진다.

2~3번 입을 양복이라도 손질을 잘해서 보관해야 막을 수 있다.

가정집에서 손질하려면 화창한 날씨가 2~3일 계속될 때 2~3시간 충분히 햇볕을 쬐어서 손질을 충분히 해야 한다.

### ■ 젖은 구두 손질법

구두가 비에 맞아 젖었을 때 젖은 구두를 햇볕이나 불에 말리면 가죽이 뻣뻣해져 수명이 짧아지므로 흙을 깨끗이 씻어내고 신문지를 신발 속에 넣어서(신문지가 습기를 흡수함)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말린다.

완전히 마르기 전에 구두약을 발라 두어야 한다.